

군산대, 산학협력 경쟁력 국립대 '1위' 등극

[머니투데이] 입력 2015.10.23 02:54



0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의 산학협력 경쟁력이 전국 국립대학교 중 1위로 평가됐다.

지난 21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군산대의 과학기술 교수당 산학협력 수익이 4천 6만원으로 국립대 1위, 호남권 1위 대학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대가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다.

군산대는 그간 교육비전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세우고 산학협력과 특성화에 매진했다.

전국 최초로 군산새만금자유경제지역 내에 제 2 캠퍼스인 산업단지 캠퍼스(새만금 캠퍼스)를 개교했으며, 대학-지역-기업이 선순환되는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핵심모델을 개발·운영하면서 학생취업 향상에 성공했다.

또한, 기계·자동차조선,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군산새만금지역학 등 지역 환경과 지역 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를 특성화해 사업단을 구성하고 우수 성과를 내고 있다.

산학협력에 대한 교수 참여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1단계 링크사업에서 '매우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현재 2단계 링크사업도 진행중이며, 또 산학연관과 협력해 수요연계교과과정을 적극 개발·운영하면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근 군산대는 테크솔구축지원사업, ICT융합 창조혁신형 기술고도화지원사업, 학교기업지원사업,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조성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성장 동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신승호, 박지현, 최지현
더글래스 효성



주천기사



쓰레기통 버려진 프로포폴로...
20대 여성형 후 '충격'

DJ 집 바닥에 앉아 "도와주세요" JP "한
풀어드리죠"

음악 유산도 부모의 유훈도 없다
... '블랙식 신인류' 조성진



이혼자는 남편 손발 묶고 ... 40대 여성
강간 혐의 구속

[단독] 국제정·지자체 중복 세무조사 ...
기업을 비명

국정교과서 찬 42% 반 53%로 여론
뒤집혀 ... 새누리 비상

젊은 과학자 100명 육성...국가적
프로젝트 추진

'455조원' 인류 최고의 부자
만사 무사할 아시나요?



목사가 목사에게 칼 휘둘러...칼 맞은 목사
중태

반 병 보증금 인상되면
소주·맥주 값 확 오른다?



설립자 낸 재산 돌려받고, 부실대학 문
닫게 해준다

문재인, 대변인 못 오게 하자 "청와대 너무
조잔"